

태권도전공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전공분야의 조절효과

김영진(경희대학교 겸임교수) · 정명규(세한대학교 교수)*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진로선택에 대한 협소한 기회, 도장 경영의 악화 등으로 인해 진로결정과정에서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태권도전공 대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전략 마련에 관한 시사점 제공을 목적으로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다각적인 관계를 규명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편의표본추출법을 통해 태권도전공 대학생 중 600부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후 검수과정을 통해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최종 434부를 대상으로 PASW/PC 25.0과 AMOS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모형분석,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셀프리더십은 태권도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은 겨루기와 시범전공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결과는 태권도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셀프리더십의 효과성이 그들의 전공분야에 따라 다양한 측면으로 발현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향후 태권도 전공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과정에서 개인의 전공분야를 기초로 한 보다 유용하고 합리적인 셀프리더십 향상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my1kiss@hanmail.ne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최근 대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심리요인의 하나로서 그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여기서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진로결정에 관한 개인능력에 대한 확신 또는 자신감이자 진로관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의미하는 개념이다(윤정혜, 2015). 그리고 이는 직업선택, 진로의사결정, 진로결정수준, 진로탐색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결정적인 예측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기초로 대학생들의 대표적 진로관련 요소 중 하나로서 설명되고 있다(고봉수, 2020; 윤정혜, 2015; Esters & Retallick, 2013; Lent & Hackett, 1987).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이와 같은 중요성은 태권도전공 대학생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진로선택에 대한 협소한 기회와 도장 경영의 악화 등으로 인해 진로결정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갖는 의미와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태권도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에 대한 관련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이때 셀프리더십은 태권도 전공생들의 진로관련 변인들에 관한 진승태와 민병석(2018), 고봉수(2020) 등의 관련연구를 토대로 볼 때, 그에 대한 대표적인 중재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말하는 셀프리더십이란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생각과 사고, 행동을 변화시켜 본인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양필석, 최석봉, 2012; 이용주, 최공집, 정명규, 2017; 정명규, 송정명, 김경섭, 2020). 고봉수(2020)는 태권도전공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무도스포츠인 태권도를 전공으로 하는 대학생들의 진로의 경우, 다른 일반학생들과 사뭇 다른 전문성을 요한다는 측면에서 보편적 진로 프로그램은

그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태권도 전공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있어서 셀프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가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발현된다는 사실과 더불어 태권도 전공생들의 전공분야에 따른 개인의 심리적 특성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태권도 전공생들의 전공분야,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관계규명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정명규(2020)는 관련하여 태권도 경기종목이 가진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개별종목 선수들의 심리적 요인들의 관계 또한 다각적으로 발현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김하연(2019)과 서예지(2016), 정은주(2015) 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셀프리더십의 효능성이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제기하며 관련연구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이런 내용에서 실제 각 대학의 태권도전공 구성원들이 주로 개별종목 선수 및 선수출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별 전공생들 또한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태권도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분야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밝힌다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것이다.

서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집단 분석을 사용하여 태권도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분야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여기서의 다집단 분석(MGA, multi-group analysis)이란 둘 이상의 집단을 분석하여 모델 간 경로계수의 통계적인 차이를 밝히기 위한 분석기법으로, 모집단으로부터 얻어진 서로 다른 표본들을 비교할 때 주로 사용된다(우종필, 2016, 정명규, 2020). 그리고 다집단 분석이 갖는 의미를 바탕으로 볼 때, 이러한 분석을 통해 태권도 전공생들의 전공분야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기존 연구모형과 구분되는 독창성 속에서 향후 태권도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에 대한 셀프리더십의 실증적인 역할을 모색하는데 있어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목적

이상과 같이 제기된 연구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집단 분석을 이용하여 태권도전공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태권도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분야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향후 태권도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관련 후속연구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연구가설

태권도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있어 셀프리더십은 그들이 꼭 갖추어야 할 능력 중 하나이다. 변화와 위기가 상존하는 오늘날,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이종찬, 2013) 셀프리더십은 태권도 뿐 아니라 다양한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과정에 있어서 개인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는 능력으로 평가되고 있다(강현욱, 2015; 고봉수, 2020; 김건희, 황은희, 2016; 김하연, 2019; 서예지, 2016; 정은주, 2015; 진승태, 민병석, 2018; 최성희, 2018).

태권도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셀프리더십의 중요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경우, 대학생들의 직업선택, 진로의사결정, 진로탐색활동 등의 진로관련 다양한 영역에 대한 결정적인 예측력을 가지는 요소(고봉수, 2020; 윤정혜, 2015; Esters & Retallick, 2013; Lent & Hackett, 1987)로서 셀프리더십은 이러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을 이끄는 핵심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간호, 무용, 미용, 체육 등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강현욱, 2015; 김건희, 황은희, 2016; 김하연, 2019; 서예지, 2016; 최성희, 2018)들은 실증적인 차원에서 셀프리더십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으며, 본 연구와 같이 태권도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고봉수(2020) 또한 셀프리더십의 유의미한 역할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서술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셀프리더십의 효과성이 대상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는 사실에서 전공종목에 따른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권도 경기종목에 따른 선수들 간의 심리적 특성의 차이에서 셀프리더십의 효능성이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그에 따른 수준 차이를 구체화하여 분석한다는 것은 실제 대학 교육현장에서 태권도전공 대학생들의 진로 불안감 감소와 관련하여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태권도 전공생들의 전공분야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다음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셀프리더십은 태권도 전공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태권도 전공생들의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전공종목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태권도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분야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태권도학과 및 태권도 관련전공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고, Covid-19로 인해 대면을 통한 설문

응답이 제한된다는 사실에서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s)의 방식으로 네이버(NAVER) 폼을 이용하여 2020년 4월 ~ 5월까지의 약 2개월 간 총 600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후 미가입, 중복가입 등으로 인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는 166 부를 제외한 434 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표 1>.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특 성		n	%
성별	남자	265	61.1
	여자	169	38.9
전공분야	겨루기	149	34.3
	품새	140	32.3
	시범	145	33.4
학년	1학년	142	32.7
	2학년	86	19.8
	3학년	100	23.1
	4학년	106	23.4
전 체		434	100.0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의 구체적인 특성으로, 먼저 성별에서 남자 265명(61.1%), 여자 169명(38.9%)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전공분야에서는 겨루기 149명(34.3%), 품새 140명(32.3%), 시범 145명(33.4%)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학년에서는 1학년 142명(32.7%), 2학년 86명(19.8%), 3학년 100명(23.1%), 4학년 106명(23.4%)으로 확인되었다.

2. 검사도구

설정된 연구목적의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이미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설문지를 검사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연구 참여자 특

표 2. 검사도구의 구성내용

변 수	요 인	문 항
셀프리더십	행동지향적 전략	6
	자연적 보상 전략	4
	건설적 사고 전략	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자기	4
	진로정보	4
	진로목표	4
	진로계획	4
	진로문제	4
연구 참여자 특성		3
총 문항		39

성 3문항, 셀프리더십 16문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20문항, 총 39 문항의 형태로 구성하였다. 검사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먼저 셀프리더십은 Prusia, Anderson과 Manz(1988)의 척도를 바탕으로 양필석(2009), 양필석과 최석봉(2012), 정명규 등(2020)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고, 다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etz, Klein과 Taylor(1996)의 척도를 바탕으로 이은진(2001), 이종찬(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참여자 특성을 제외한 구성된 내용의 각 문항들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검사도구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PASW/PC ver 25.0과 AMOS ver 21.0을 사용하여 아래의 분석을 통해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첫째,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을 파악하였다. 둘째, 측정모형 분석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Cronbach's α 산출을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통해 검사도구의 타당도(validity)와 신뢰도(reliability)를 확인하였다. 셋째, 상관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통해 단일차원성이 입증된 요인들 간의 상호관련성과 방향성을 규명하였다. 넷째,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MG CFA, multiple group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교차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측정 동일성을 검토하였다. 다섯째, 설정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및 다집단 분석(MGA)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검사도구로 사용된 설문지의 타당도(validity) 및 신뢰도(reliability)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FA)과 Cronbach's α 계수 산출을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CMIN(df)= 1719.527(566), CFI= .909, TLI= .899, SRMR= .044, RMSEA= .069로 검출되어 선행연구(배병렬, 2017; 우종필, 2016;; Garrido, Abad, Ponsoda, 2016)들이 제안한 검정기준에 부합하여 모형적합도가 규명되었다. 그리고 모든 하위요인에서 개념 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 .7 이상, 분산추출지수(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5 이상, Cronbach's α .7 이상인 수치로 나타나 집중 타당도(convergent validity) 및 신뢰도가 검증되었으며, AVE 지수 최소(.614)가 상관관계 제공 최대(.453) 보다 큰 것으로 검출되어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또한 확보되었다(우종필, 2016; 이용주, 2018; Anderson & Gerbing, 1988; Fornell & Larcker, 1981).

표 3. 검사도구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결과

Factor	Item	<i>B</i>	ρ	<i>t</i>	<i>a</i>	AVE	CR
행동지향적 전략	d1	1	.809				
	d2	1.051	.806	19.265***			
	d3	1.133	.820	19.759***	.929	.697	.932
	d4	1.117	.879	21.832***			
	d5	1.116	.852	20.869***			
	d6	1.044	.806	19.277***			
자연적 보상 전략	d7	1	.894				
	d8	1.021	.898	27.604***	.927	.758	.926
	d9	.970	.869	25.768***			
	d10	.935	.828	23.411***			
건설적 사고 전략	d11	1	.862				
	d12	1.030	.889	25.591***			
	d13	.967	.843	23.141***	.943	.733	.943
	d14	.923	.856	23.792***			
	d15	.940	.834	22.698***			
	d16	.927	.855	23.722***			
진로자기	j1	1	.788				
	j2	1.029	.763	16.660***	.862	.651	.881
	j3	1.120	.852	18.939***			
	j4	.972	.730	15.789***			
진로정보	j5	1	.759				
	j6	1.122	.840	17.048***	.851	.614	.864
	j7	.955	.761	15.514***			
	j8	1.010	.711	14.435***			
진로목표	j9	1	.786				
	j10	1.157	.822	18.467***	.882	.654	.883
	j11	1.212	.766	16.951***			
	j12	1.190	.869	19.758***			
진로계획	j13	1	.821				
	j14	.964	.697	15.589***	.870	.647	.879
	j15	.937	.826	19.475***			
	j16	1.118	.846	20.096***			
진로문제	j17	1	.791				
	j18	1.363	.912	21.854***	.914	.733	.916
	j19	1.327	.895	21.366***			
	j20	1.123	.820	19.036***			

CMIN(df= 1719.527(566), CFI= .909, TLI= .899, SRMR= .044, RMSEA= .069

 $p < .001$

2. 상관분석

단일차원성이 확인된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구성요인 간의 상관관련성 및 방향성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된 상관분석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표 4>와 같다. 도출된 결과로서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구성요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보편적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검정기준인 .8 아래인 .271 ~ .673 수준에서 통계적($p < .01$)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M	SD	a	b	c	d	e	f	g	h
a. 행동지향적	3.61	.84	1							
b. 자연적보상	3.49	.92	.566**	1						
c. 건설적사고	3.60	.89	.649**	.645**	1					
d. 진로자기	3.70	.78	.382**	.461**	.392**	1				
e. 진로정보	3.66	.79	.271**	.348**	.302**	.537**	1			
f. 진로목표	3.75	.86	.353**	.481**	.328**	.673**	.554**	1		
g. 진로계획	3.60	.83	.326**	.405**	.384**	.627**	.517**	.607**	1	
h. 진로문제	3.55	.91	.275**	.272**	.288**	.486**	.475**	.489**	.549**	1

** $p < .01$

3.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태권도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분야 따른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선행과정의 하나인 교차타당성 검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5>와 같다. 여기서 말하는 교차타당성이란 모집단으로부터 도출된 특정 집단의 결과와 같은 모집단으로부터 도출된 다른 집단의 결과 간의 동일성을 검증할 때 사용되는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Amos

에서는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MG CFA)을 이용하여 교차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우종필, 2016; 이규동, 이지향, 장세용, 2019; 정명규, 2020).

교차타당성 검증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으로, 비제약모델(free)과 요인부하량 제약모델(λ , $\Delta\chi^2(56) = 65.837 < 74.468$)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지만, 비제약모델(free)과 요인부하량 및 공분산 제약모델(λ , ϕ ; $\Delta\chi^2(200) = 323.180 > 233.994$), 요인부하량, 공분산, 오차분산 제약모델(λ , ϕ , θ ; $\Delta\chi^2(272) = 491.505 > 311.467$) 간의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때 측정동일성 검증이 요인부하량 제약모델(λ)을 중심으로 집단 간의 차이가 없음을 기대한다는 측면에서 세 집단이 구성개념에 대해 서로 같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요인부하량, 공분산, 오차분산 제약모델과의 유의한 차이를 통해 경로간의 유의한 차이를 예상하였다(우종필, 2016; 이규동 등, 2019; 이창기, 정옥, 2014; 정명규, 2020).

표 5. 측정동일성 분석 결과

Model	χ^2	df	CFI	TLI	RMSEA	$\Delta\chi^2(df)$	Sig.
free	3535.574	1698	.864	.848	.050		
λ	3600.961	1754	.863	.853	.049	$\Delta\chi^2(56) = 65.837$	기각
λ, ϕ	3858.754	1898	.855	.855	.049	$\Delta\chi^2(200) = 323.180$	채택
λ, ϕ, θ	4027.079	1970	.848	.854	.049	$\Delta\chi^2(272) = 491.505$	채택

note 1. 자유도(df)가 32, 200, 272 일 때, 유의수준 .05에서의 기각 기준치는 각각 74.468, 233.994, 311.467 이다.

note 2. Δ = 변화량

4. 가설검증

태권도전공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다각적인 관계를 규명한다는 연구목적에 위해 설정된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연구가설 1

전공종목의 조절효과 검증에 앞서 태권도전공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설정된 가설 1의 검증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6>과 같다. 분석결과, 모형적합도 지수가 검정기준을 충족하는 CFI= .978, TLI= .967, SRMR= .033, RMSEA= .065 수준으로 나타났다(우종필, 2016; 정명규, 2020; Garrido et al., 2016), 이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셀프리더십이 가진 경로계수($\beta = .604$, $p < .001$)의 통계적 유의성이 검출되어 가설 1은 채택되었다.

표 6.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구조모형 분석 결과

Path	β	t	Sig.
셀프리더십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604	10.298***	채택
CMIN(df)= 53.765(19), CFI= .978, TLI= .967, SRMR= .033, RMSEA= .065			

*** $p < .001$

2) 연구가설 2

태권도전공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전공종목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설정된 가설 2의 검증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셀프리더십의 영향력은 겨루기($\beta = .532$, $p < .001$), 품새($\beta = .557$, $p < .001$), 시범($\beta = .663$, $p < .001$)과 같이 전공분야별로 다른 수준임이 확인되었고, 이때 겨루기와 시범 전공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어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표 7. 태권도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분야에 따른 다집단 분석 결과

Path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Critical Ratio for Difference	Sig.
	겨루기	품새	시범		
셀프리더십	.532***	.557***		.257	기각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532***		.663***	2.017	채택
		.557***	.66***	1.857	기각

 $p < .001$

IV. 논의

본 연구는 태권도전공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다각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가 가진 구체적인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가설의 검증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태권도전공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설정된 가설 1을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어 채택되었다. 도출된 결과는 능동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행동과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 태권도 전공생 본인 스스로가 자신에게 발휘하는 셀프리더십이 그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심리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내포하는 것으로, 이는 그간 태권도뿐 만 아니라 간호, 무용, 체육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연구를 통해 지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강현욱(2015)은 체육대학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있어 셀프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고, 최성희(2018)는 무용전공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그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유의미한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이 태권도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규명한 고봉수(2020)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도출된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태권도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대표적인 긍정적 정서의 하나이다. 최근 많은 태권도 전공생들은 진로결정에 대한 불안감에 노출되고 있다고 한다. 협소한 진로선택 기회 및 도장 경영의 악화 등은 태권도전공생이 경험하고 있는 불안감의 주요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이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 불안감 감소와 관련된 직업선택, 진로의사결정, 진로탐색활동 등에 대한 결정적인 예측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기초로 태권도 전공생들에게 갖는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봉수, 2020; 윤정혜, 2015; Esters & Retallick, 2013; Lent & Hackett, 1987).

이런 내용에서 태권도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그 가운데 셀프리더십은 태권도 전공생들의 진로관련 변인들과의 유의미한 관련성(고봉수, 2020; 진승태, 민병석, 2018)을 근거로 볼 때, 그에 대한 주요 변수의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봉수(2020)는 이와 관련하여 태권도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진로가 타 전공생들과는 구분되는 전문성을 요한다는 측면에서 셀프리더십을 강조한 진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재전략으로서의 셀프리더십 가치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서술된 내용에서와 같이 태권도가 가진 겨루기, 품새, 시범 등의 전공분야에 따른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토대로 볼 때, 해당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전공분야에 따른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태권도학과 구성원들이 각 종목별 선수 및 선수출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별 전공생들 또한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공분야에 따른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규명한다는 것은 실증적인 차원에서 태권도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 방안마련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태권도전공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전공분야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설정된 가설 2를 검증한 결과, 겨루기와 시범에서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어 부분적으로 채택되

었다. 도출된 결과는 시범전공 학생들이 인식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셀프리더십의 효과성이 겨루기전공 보다 크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겨루기와 시범전공의 차이는 개별종목이 가진 진로결정 과정 및 보편적 훈련 환경 차이에 의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으며,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관한 그간의 연구결과들은 이를 지지하고 있다.

제시된 논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먼저 진로결정 과정과 관련하여서는 졸업 후 진로가 비교적 분명한 겨루기 전공생들과는 달리 시범전공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직업선택, 진로의사결정, 진로탐색활동 등에 관해 개인스스로의 능동적인 역할이 강조된다는 사실로 인해 이러한 차이가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관한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없으나 이선규, 강은구와 구성득(2017)은 조직구성원들의 책임, 권한, 자율성의 확대에 관한 임파워링 리더십과 셀프리더십 간의 밀접한 관계를 밝히며, 제시된 논의의 적합성을 간접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또한 훈련환경에 관해서는 정대겸, 이용건과 이원일(2017)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며, 엘리트 선수로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압적이고 주입하는 훈련방식을 주로 실시하는 겨루기와는 반대로 내재동기 향상을 높이는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연습하는 시범의 훈련환경으로 인해 겨루기, 시범전공 간의 차이가 유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할 때, 향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방안으로 셀프리더십을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진로선택, 진로결정 등과 관련된 겨루기, 품새, 시범전공이 가진 환경적 특성이 상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개인의 전공분야를 고려한 접근을 통해 보다 유용하고 합리적인 중재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여 보면, 태권도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관련하여 셀프리더십은 그에 대한 주효한 중재전략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셀프리더십이 가진 효과성은 진로와 관련된 태권도 전공분야가 가진 특성에 기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태권도전공 대학생들이 태권도라는 같은 학문을 전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루기, 품새, 시범 등의 개인의 세부 전공분야가 지닌 진로와 관련된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셀프리더십의 효과성이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태권도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과정에서 대학이라는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학생개인의 전공분야를 기초로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지도, 상담, 특강 등의 효과적인 교육과정 및 취업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진로선택에 대한 협소한 기회, 도장 경영의 악화 등으로 인해 진로결정과정에서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태권도전공 대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전략 마련에 관한 시사점 제공을 목적으로 진행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사용하여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규명 및 전공분야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셀프리더십은 태권도 전공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은 겨루기와 시범전공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권도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셀프리더십의 효과성이 그들의 전공분야에 따라 다양한 측면으로 발현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결과로, 이런 내용에서 향후 태권도 전공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과정에서는 학생개인의 전공분야를 기초로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교육 및 취업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설적인 측면에서의 의미 있는 후속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가 다집단 분석을 통해 진행된 태권도전공 대학생들 전공분야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밝히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이에 관해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근거마련을 위한 후속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 둘째, 본 연구가 양적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질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

어려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추가적인 접근을 통해 유용하고 합리적인 중재 전략에 관한 폭넓은 시사점이 제공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강현욱(2015). 체육대학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위한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인과관계 검증: 2년제 및 4년제 대학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9(1), 98-111.
- 고봉수(2020). 태권도전공 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한국스포츠학회지**, 18(1), 77-86.
- 김건희, 황은희(2016).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비판적사고 성향,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2), 436-445.
- 김하연(2019). 무용전공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취업준비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지**, 36(1), 45-59.
- 배병렬(2017). **Amos 24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청람.
- 서예지(2016). **미용전공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사회적지지, 진로성숙도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대학원.
- 양필석(2009). **핵심자기평가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 양필석, 최석봉(2012). 심리적 자본이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36(1), 1-29.
- 우종필(2016).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
- 윤정혜(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과 고용가능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5(2), 29-46.
- 이규동, 이지향, 장세용(2019). 태권도 선수들의 심판 판정 인식과 인지된 경기력의 관계: 배경변인의 조절효과 검증. **무예연구**, 13(4), 175-193.

- 이선규, 강은규, 구성득(2017). 임파워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5(11), 209-220.
- 이용주(2018). 태권도 시범단원의 운동몰입에 대한 성취목표성향의 상대적 영향력. **무예연구**, 12(2), 39-55.
- 이용주, 최공집, 정명규(2017). 태권도 품새 선수의 셀프리더십이 운동탈진과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무예연구**, 11(1), 73-88.
- 이은진 (2001). **다재다능한 대학생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종찬(2013).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이창기, 정욱(2014). 기업 내부 부서간의 협력이 신제품 개발성가에 미치는 영향: 환경적 불확실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품질경영학회지**, 42(4), 617-632.
- 정명규(2020). **태권도 경기력 결정 심리요인 효과성에 대한 다집단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정명규, 송정명, 김정섭(2020). 태권도 선수의 셀프리더십, 운동 몰입 및 경기력의 관계. **무예연구**, 14(1), 183-202.
- 정태검, 이용건, 이원일(2017). 체육계열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과 자아존중감, 학습몰입 및 혁신행동간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26(1), 345-359.
- 정은주(2015). **항공사 승무원 취업준비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 진승태, 민병석(2018). 태권도 전공 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대한무도학회지**, 20(1), 71-87.
- 최성희(2018). 무용전공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취업준비역량에 미치는 영향. **국제보건미용학회지**, 12(1), 19-30.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 Esters, L. T. & Retallick, M. S. (2013). Effect of an Experiential and Work-Based Learning Program on Vocational Identity,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Research*, 38(1), 69-83.
- Garrido, L. E., Abad, F. J., & Ponsoda, V. (2016). Are fit indices really fit to estimate the number of factors with categorical variables? Some cautionary finding via Monte Carlo simulation. *Psychological Methods*, 21(1), 93-111.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Lent, R. W., & Hackett, G. (1987). Career self-efficacy: Empirical status and future direc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 347-382.
- Prusia, G. E., Anderson, J. S., & Manz, C. C. (1998). Self-leadership and performance outcomes :The mediating influence of self-efficacy.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9, 523-538.

ABSTRACT

A study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major field based on the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and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f undergraduate students for the taekwondo major

Kim, Young-Jin(KyungHee Univ.) · Jung, Myung-Kyu(Sehan Univ.)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mult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o provide the pertinent implications regarding an effective intention strategy for undergraduate students for the Taekwondo major who display higher concerns for the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in part due to a lack of opportunities in terms of career choices, the financial difficulties of Taekwondo studio, etc. For this, in the body, 600 data have been collected from undergraduate students for the Taekwondo major through the use of convenience sampling. Of them, a total of 434 valid data previously verified in the review are applied to the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group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multi group analysis with the PASW/PC 25.0 and AMOS 21.0. As can be seen in the results, self-leadership is positively affected to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undergraduate students for the Taekwondo major, and indicates a sufficient difference from Kyorugi and demonstration major. The conclusion is that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for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undergraduate students for the Taekwondo major indicates that numerous aspects can be expressed according to their specific majors. Therefore, the suggestion should be to arrange programs that improve the reasonable self-leadership ability through an approach based on the individual majors when undergraduate students for the Taekwondo major

have to increase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s they progress.

Key words: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논문 투고일 : 2020.12.31.
심 사 일 : 2021.01.10.
심사완료일 : 2021.01.31.

